



보도자료

영천
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자유한국당

2018. 10. 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 5개 유통 자회사의 2015년 대비 영업이익 감소
- 매출액 대비 CEO 연봉은 고공행진

2. 매년 증가하는 농협 상호금융 보이스 피싱과 금리 확대

- 농협 상호금융 환급건수 대비 환급현황도 평균 18%에 불과한 수준
- 보이스피싱 피해는 경기, 경남, 경북 지역 순으로 높아

3.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

- 지난 6년간 농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낸 미이행 부담금만 122억원
- 의무고용율은 29476명 고용이나 현재 고용율은 1.521250명에 불과

4. 여직원에게만 좁은 승진길, 유리천장 혁파해야

-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여성 임원 0명
- 금융지주 및 계열사(은행, 생명, 손해보험) 임원 직급 28 명중 여성은 단 1명
-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여성 임원 0%, 반면 여성 비정규직은 각각 42%, 47%로 높아



보도자료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만희

2018. 10. 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1. 지지부진한 농협 유통자회사 통합

- 5개 유통 자회사의 2015년 대비 영업이익의 감소
- 매출액 대비 CEO 연봉은 고공행진

- 올해로 농협이 신경분리(신용과 경제사업분리)를 추진한지 6년째를 맞고 있음. 그간 농협은 자산 58조원에 35개 자회사를 거느린 국내 9위의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했음.
- ※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내역을 보면 한화(61조) 보다는 작지만 현대중공업(56조)보다는 큰 규모임.
- 그러나 이러한 사업구조 개편의 진정한 목적은 농협의 외형을 크기는 것이 아니라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것임.
- 하지만 농협의 경우 2016년 7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소매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했던 유통회사 자회사 통합은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임.
- 농협경제지주는 2017년까지 「농협하나로유통」, 「농협유통」, 「부산경남유통」, 「충북유통」, 「대전유통」을 단일법인화하여 소매유통사업에서의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유통자회사 통합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며, 매년 영업이익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2015년 대비 17년 영업이익을 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5년 83억원에서 지난해 48억원으로 이익이 반토막 났으며, 부산경남유통은 21억원에서 8억원으로 충북유통은 26억에서 11억원, 대전유통 역시 10억에서 4억으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유통자회사 현황 >

구분	설립일자	지분율(%)		최근 영업이익(억원)			
		경제지주	지역농협	'15년	'16년	'17년	증감률 (15년대비)
농협하나로유통	'15. 3. 2	100.00	-	363	382	353	-3%
농협유통	'95. 5. 1	100.00	-	83	64	48	-42%
부산경남유통	'98. 4. 7	100.00	-	21	6	7	-67%
충북유통	'98. 8. 1	70.91	29.09	26	9	10	-62%
대전유통	'98.11. 24	93.92	6.08	10	7	4	-60%

- 그런데 이에 비해 이들 유통자회사 경영진의 안이한 자세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바로 영업이익 대비 CEO 연봉임.

<매출액 대비 유통 CEO 연봉>

(단위 : 백만원)

점포명	직급	대표자	2017년 영업이익	급여액	이익대비 급여액(%)	전직(중앙회)
농협하나로유통	임원	김○○	35,312	230	0.7%	판매유통상무
농협유통	임원	이○○	4,888	208	4.3%	기획상무
부산경남유통	임원	김○○	766	130	17%	판매유통상무
충북유통	임원	이○○	1,058	151	15%	지역 본부장
대전유통	임원	국○○	436	121	28%	원예상무

- 농협유통은 영업이익이 48억인데, 대표의 연봉은 2억, 부산경남은 7억 이익에 연봉은 1억 3천 만원, 대전유통은 4억 이익에 연봉은 1억 2천 만원임.
- 일반 민간 회사라면 실적 부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든가 아니면 월급을 자진 반납해야 할 경영실적을 가지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임.
- 이만희 의원은 이에 대해 “사실상 유통 대표들의 월급을 주기도 벅찬

것이 지금농협 유통 자회사들의 현실이라며, 농민의 생산품을 제값 받고 소비자에게 잘 팔수 있도록 돕는 조직이 아니라 임원들의 자리보전 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 “매년 경영이익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자사 통합추진에 대한 향후 계획과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음.



보도자료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만희

2018. 10. 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2. 매년 증가하는 농협 상호금융 보이싱 피싱

- 농협 상호금융 환급건수 대비 환급현황도 평균 18%에 불과한 수준
- 보이싱피싱 피해는 경기, 경남, 경북 지역 순으로 높아

1) 농협 상호금융 보이싱 피싱 급증

- 지역 농축협이 계좌를 이용한 보이싱피싱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016년 2,973건에 피해액 150억 원에서 지난해 4,55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피해금액 역시 300억 원으로 2 배 이상 증가하였음.
-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피해 신청건수는 이미 4천 건이 넘었고 피해 금액도 작년 피해금액을 훨씬 넘어 벌써 3백 10억원임.
- 반면 환급건수는 2016년 피해건수의 72%인 2,160건, 환급금액은 피해 금액의 16% 수준인 25억이며, 지난해에는 환급건수는 81%이나 환급금액은 18%에 불과한 50억 원이었음.

<지역 농축협 보이싱피싱 발생현황>

(단위:건, 백만원)

피해발생기간	신청 현황		환급 현황	
	건수	피해금액	건수	환급금액
2015년	2,904	17,152	1,774	11,234
2016년	2,973	15,421	2,160	2,527
2017년	4,557	30,154	3,720	5,602
2018.1.1.~8.31	4,052	31,681	3,869	5,639

- 농협은 그동안 고령화된 농업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2015년 이후 최근 4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하지만 농협중앙회 자료에 의하면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는 등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지역별 전담직원 교육」 실적을 보면 올해 1월 30일 단 한차례 실시한 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 지난 2014년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농축협 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금액의 환급 역시 제대로 이뤄지고있지 못한 상황임.
- 최근 4년간 각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3,787건, 피해금액은 241억으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뒤를 이어 경남과 경북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지역 농축협의 피해사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보이스피싱 예방 지도와 교육을 전담하는 직원은 단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역 농·축협 점포수가 4,701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임.

<지역별 보이스피싱 사기 현황>

(단위:건, 백만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8월 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경기	865	5,019	706	3,777	1,185	7,670	1,031	7,682
강원	109	826	126	774	176	1,210	141	872
충북	94	509	112	784	186	1,617	139	889
충남	232	1,405	230	1,302	341	2,300	306	2107
전북	103	516	145	654	197	1,102	177	1355
전남	136	791	131	573	271	1,919	256	2728
경북	259	1,498	248	1,254	456	2,831	323	2665
경남	226	1,771	297	1,358	449	2,891	495	4571
제주	38	257	40	182	84	611	52	354
서울	304	1,643	312	1,625	309	2,304	288	2079

부산	69	445	60	315	138	637	97	722
대구	62	206	112	509	147	769	161	1251
인천	170	877	195	1,004	207	1,579	156	1140
광주	64	275	87	425	145	1,019	124	1061
대전	90	545	86	487	119	871	155	1443
울산	83	570	86	396	147	822	151	763
계	2,904	17,152	2,973	15,421	4,557	30,154	4,052	31,681

-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고령조합원이 유달리 많은 농축협 상호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상적인 보이스 피싱 대응이 아니라 농촌특성과 연령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된 예방적 금융보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며,
-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호금융에 대한 특단의 예방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별 맞춤형 집중 예방지도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보도자료

 **영천
청도 국회의원**
이만희

2018. 10. 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3.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농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외면

- 지난 6년간 농협은행이 장애인 고용 외면하고 낸 미이행 부담금만 122억원
- 의무고용율은 2.9%(476명 고용)이나 현재 고용율은 1.52%(250명)에 불과

- 농협중앙회는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대신 부담금을 납부해 오고 있는 데, 의무 고용율은 2.9이나 중앙회의 고용율은 1.68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26억 4천만원에 달함.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연평균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	의무 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미이행 부담금
'13	7,636	2.5	190	124	1.62	522
'14	7,166	2.7	193	123	1.71	582
'15	4,387	2.7	118	74	1.68	436
'16	3,784	2.7	102	61	1.61	394
'17	2,680	2.9	77	45	1.68	323
'18.8	2,739	2.9	79	46	1.68	385
총계	-	-	-	-	1.66	2,642

주) 장애인 고용부담금 = 월별 의무고용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 부족인원 1인당 부담기초액 : '17년 월 812~1,352천원, '18년 월 945~1,573천원

- 최근 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단계적으로 높아져가는 고용노동부의 의무고용율과는 반대로 농협의 장애인 고용율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임.

- 무엇보다 범 농협의 계열사 중 가장 심각한 곳은 농협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 산하 기관들임.

<농협은행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백만원)

구분	연평균 상시근로자	의무고용률	의무 고용인원	고용인원	고용률	미이행 부담금
'13	16,618	2.5	415	245	1.47	1,351
'14	17,387	2.7	469	244	1.40	1,964
'15	17,177	2.7	463	232	1.35	2,185
'16	17,053	2.7	460	250	1.47	1,932
'17	16,808	2.9	487	250	1.49	2,272
'18.8	16,444	2.9	476	250	1.52	2,576
총계	-	-	-	-	1.45	12,280

-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은행의 의무고용율은 2.9이나 실제 고용율은 1.49로 절반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납부한 미이행 부담금만 해도 120억원이 넘는 상황임.
- 농협 생명 역시 고용율이 0.72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 이후 14억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있음. 농협 손해보험의 고용율도 0.81에 불과하며, 지난 2013년 이후 6억4천만 원의 미이행 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면피하고 있는 상황임.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7%에서 2.9%로 상향했고, 2019년에는 3.1%로 더 상향될 예정이고 공무원,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기존 3.2%에서 내년에는 3.4%로 더 강화될 계획임.
- 이러한 농협의 장애인 고용 회피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범 농협그룹 중에서도 근무여건과 연봉이 가장 높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농협은행의 고용율이 가장 낮고 그동안 120억원 넘는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해오며 장애인 고용을 면피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낀다.”며, “장애인에겐 안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인권이고 생계인 만큼, 일자리에서 조차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농협중앙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주시길” 강력히 촉구하였음.



보도자료

영천
청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만희

2018. 10. 16.(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 784-5901 / FAX: 02) 788-0302 / E-mail: yc20002@naver.com

문의: 강성우 보좌관

4. 여직원에게만 좁은 승진길, 유리천장 혁파해야

- 농협중앙회 및 경제지주 여성 임원 0명
- 금융지주 및 계열사(은행, 생명, 손해) 임원 직급 28명중 여성은 단 1명

○ 2018년 8월 기준으로 농협중앙회 및 35개 계열사를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의 집행간부급(상무보 이상)의 여성비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 중앙회의 경우 624명 중 42%인 259명이 비정규직이었으며, 경제지주 역시 517명의 여직원 중 48%인 246명이 비정규직이었음.

<농협중앙회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원	여성	비율	비고
집행간부급이상	14	0	0.0	상무보 이상
정규직	1,775	256	14.4	
비정규직	624	259	41.5	
계	2,413	515	21.3	

주) 1. 2018.8월말 현원기준(휴직 등 제외)

<농협경제지주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인원	여성	비율	비고
집행간부급이상	8	-	0	상무보 이상
정규직	1,587	152	9.6	
비정규직	517	246	47.6	
계	2,112	398	18.8	

- 농협의 금융지주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26명의 임원직급 중 농협은행에 단 1명의 부행장보(상무보급)만이 집행간부 보직을 받았으며, 심지어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의 경우에는 M급(부장급)도 없는 상황임.
- 범농협 그룹과 계열사 중에서도 특히 여성의 비율이 높은 금융관련의 경우 전체 임직원 대비 현황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유리천장의 심각성을 더욱 알 수 있음.
- 농협은행은 전체 16,306명의 임직원 중 50%인 7,991명이 여성이며, 농협생명과 농협손보 역시 전체 직원 중 각각 38%, 33%가 여성이나 관리 직군으로 올라갈수록 급격한 좁은문으로 바뀌게 됨.
- 4급(과장급) 기준으로 농협은행은 여성비율이 52.4%이나 M급(부장급)은 3.4%이고, 농협생명과 손보 역시 4급 중 여성 비중은 36%와 37%이나 M급은 단 1명도 없는 것이 현실임.

<농협 금융지주 및 계열사 임직원 현황>

2018.8	직급	총원	여성	
			근로자수(명)	비율(%)
농협금융지주	임원 및 집행간부	3	0	0.0
	M급	11	0	0.0
	3급	22	0	0.0
	4급	54	7	13.0
	5급이하	5	1	20.0
	비정규직	35	14	40.0
	합계	130	22	16.9
농협은행	임원 및 집행간부	15	1	6.7
	M급	652	22	3.4
	3급	1,928	359	18.6
	4급	4,531	2,374	52.4
	5급이하	6,248	3,032	48.5
	비정규직	2,932	2,203	75.1
	합계	16,306	7,991	49.0

2018.8	직급	총원	여성	
			근로자수(명)	비율(%)
농협생명	임원 및 집행간부	5	0	0
	M급	30	0	0
	3급	73	10	13.7
	4급	150	54	36.0
	5급이하	334	135	40.4
	연봉제일반직	195	34	17.4
	비정규직	307	185	60.3
	합계	1,094	418	38.2
농협손해	임원 및 집행간부	3	-	0.0
	M급	11	-	0.0
	3급	50	2	4.0
	4급	49	18	36.7
	5급이하	168	56	33.3
	연봉제일반직	161	32	19.9
	비정규직	236	118	50.0
	합계	678	226	33.3

○ 더욱이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임원과 관리직에 대한 진출은 고사하고 여직원들의 농협중앙회 비정규직 비율은 41%, 경제지주는 47%에 이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금융 계열사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지주는 40%, 은행은 75%, 농협생명은 60%, 농협손해보도 50%의 여성 근로자가 비정규임. 농협은행의 경우 3명중 1명은 비정규직인 상황임.

○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위미노믹스(Womenomics) 시대'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활동확대가 국가와 경제발전에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농협이 앞장서 주길 강력히 촉구하였음.